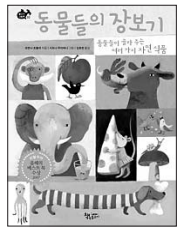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동물들의 장보기=동물들이 음식을 사러 마트에 가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동물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자연식품을 산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귀여운 동물과 음식 이야기가 사랑스럽게 표현돼 있다.

〈책속물고기·9800원〉



▲내 일기장 속에는=1979년 월간 '아동문예'에 동시 3회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온 중견 시인 박일세의 동시집. 바다를 소재로한 시를 비롯해 주위의 풍경을 동심의 이미지로 생명력 있게 표현한 시 50편을 담았다. 시인은 바다를 통해 아바엄마의 고단한 삶과 정겨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내기도 한다.

〈섬아이·8500원〉



▲지금 당장 시작해!-지구를 살리는 녹색 실천=지구 환경 파괴의 역사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양치를 하는 내내 물을 틀어 놓고 쓰는 건 아닌지, 점심 먹을 때 음식을 남겨 버리게 하진 않는지, 과자 봉지를 길거리로 버린 적은 없는지 등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아이세움·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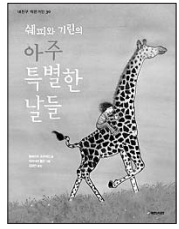
▲지도로 만나는 우리나라 역사='지도로 만나는' 시리즈의 다섯 번째 권. 우리나라 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인류 탄생의 순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총 9개의 시대로 나눠 지도와 함께 담았다.

〈뜨인돌어린이·1만2000원〉



▲숲의 길=이형진 작가의 신작 그림책. 종이를 찢어 붙인 듯한 콜라주로 표현했다. 아이들과 강아지가 길이 없는 숲길을 달려 올라간다는 내용으로 점점 빨라지는 아이들의 속도를 색깔을 점증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담은 그림이 돋보인다.

〈느림보·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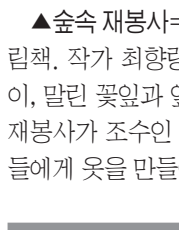


▲쉼피와 기린의 아주 특별한 날들=해어지는 건 어떤 걸까?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 등 아이들이 던질만한 철학적인 물음이 담겨있다. 함께 연날리기도 하고 여행도하는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질문과 답을 찾는 일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국민서관·8000원〉



〈파리새·1만2000원〉



▲숲속 재봉사=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콜라주 그림이 돋보이는 그림책. 작가 최향림씨가 오랜 시간 소중히 모아온 조개껍데기, 돌맹이, 말린 꽃잎과 잎사귀 등을 재료로 사용해 만들었다. 숲 속에 사는 재봉사가 조수인 자벌레, 거위벌레, 거미와 함께 살면서 숲속 동물들에게 옷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창비·1만원〉

비자금 조성·전방위 로비·편법 상속 등 적나라하게 까발린 '재벌의 탐욕'



허수아비춤

조정래 지음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67·사진)가 대기업의 비리와 권력자들의 비밀을 신랄하게 파헤친 소설 '허수아비춤'을 출간했다. 장편으로는 2007년 '오 하느님'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소설은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 로비, 재산 상속과 경영권 승계 등 재벌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해부한다. 이번 소설을 통해 작가가 던지는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소설은 업계 2위 일광그룹의 강기준 실형총무가 비자금 문제로 실형을 살고 나온 그룹 총수로 부터 라이벌인 일류 태봉그룹의 그것처럼 '회장 직속 정보 조직체'를 꾸리라는 특급 지령을 받고 태봉그룹의 1급 첩보원인 박재우를 스카우트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스카우트에는 100억원의 보너스와 스톡옵션이 거래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총수 친위부대의 이름은 '문화계척센터'다. 여기서 윤성훈, 박재우, 강기준 3인방이 핵심적인 '작업'을 한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 국제정, 정부 부처, 언론사 등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한편, 그룹 후계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상속 전락을 말 그대로 '소리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추악한 뒷면이 드러난다.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를 실은 언론을 광고로 압박하는 기업,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부당한 명령에

맞서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의 공모자가 되는 검사들, 회사 쪽의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노조 간부, 50만 원의 가위돈을 챙기기 위해 기업의 뒷문을 부리나게 들락거리는 기자들... 우리 사회의 추태란 추태는 모두 등장한다.

대기업 회장과 임원들은 사회 지도층 2000명에게 3000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려봐야 전체 비자금에 비하면 새 물의 파리며 흠족해 한다. 등장 인물들은 한결같이 '탐욕'이라는 고리로 꿰여져 있다.

그러니 이들은 자본의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 소설의 제목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설은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정관계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과 아합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경영권과 재산권 상속 작업을 하는 재벌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 중심에는 회장 직속의 '친위부대'가 있으며, 이에 맞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을 정화하는 힘

으로 도덕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작가가 "너무 직설적인 게 흠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만큼 소설은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점부터 해결책까지 거침없이 드러낸다.

바로 뛰는 철저한 취재와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쓴 소설은 능수능란한 비유와 풍자, 논리 정연한 입담이 가득하며 그 솜씨는 독자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하다.

조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4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설은 지난 8월부터 인터넷과 도서에 온라인 연재됐으며 2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22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파란을 불렀다.

〈문학의문학·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주의 생성·진화에 얽힌 이야기

우주 이야기

베리 외 지음



미국의 생태신학자이자 문화사학자인 토머스 베리(1914~2009년) 신부와 수리 물리학자 브라이언 스펠이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관해 쓴 '우주 이야기'가 번역·출간됐다.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은 책은 단순한 과학 이론서에 머물지 않는다. 우주와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지구가 신생대 말기의 산업문명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위기 극복을 위해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생태대'(Ecozoic era)로의 비약이며 이를 위해 우주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생태대는 지구공동체 전 구성원들의 진고를 바탕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치유하는 시기'다.

지구가 생태대로 도약하지 못하면 미래는 '기술대'(Technozoic era)가 되는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유전 공학과 같은 기계적 통제로 자연적, 생물학적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인간이 자연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생태대에 다다를 수 없다. 지구공동체의 미래는 인간과 땅, 모든 생물의 유기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대화문화아카데미·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찾기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지음



'노동의 새벽'의 박노해(53) 시인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를 냈다. 1999년 '겨울이 꽃이다' 이후 11년 만의 신작 시집이다.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7년 5개월을 복역한 후 1998년 석방됐다. 이후 그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전쟁, 분쟁 지역을 다니며 평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시집은 지난 10여 년간 쓴 5000여 편의 시 중에서 300여 편을 골라 묶었다.

시집에는 세계사의 모순과 고난, 인류의 삶의 고통과 몸부림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찾으려는 시인의 노력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시인은 이라크의 전쟁고아 마루안을 떠올리며 "정말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끔찍하다고/전쟁 다음 또 전쟁인데 언제쯤 끝나겠냐고/내가 어른 되기 전에 정말 학교 갈 수 있겠냐고/테러리스트 같은 눈동자로 물어오는 것이었다"(마루안의 꿈)며 전쟁의 비극에 아파한다.

시인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시장사회로부터 영혼의 테러를 당해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며 "희망도 없고 어른도 없는 시대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거대한 악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절규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느림걸음·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따뜻한 감동 솟아나는 가족공동체

구경꾼들

윤성희 지음



현대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윤성희(37)씨가 등단 11년 만에 첫 장편 '구경꾼들'을 냈다.

소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삼촌, 작은삼촌, 고모까지 함께 사는 '나'가 말하는 가족 이야기다.

소설은 아버지가 어릴 때 아이스박스에 이불이나 갠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면서 시작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그러니 '나'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다. 아이스박스 이야기는 아버지의 프리포즈가 되고, 이는 하루에 100개씩 돼지족발을 썰면서 출로 어머니를 키운 외할머니 이야기로 이어진다.

온 가족의 바다 여행을 떠나면서는 가족이 타고 간 봉고를 빌려준 아버지의 회사 동료 김 대리의 사연이 가지 치고, 외할머니가 일출을 보다 우연히 만난 침낭 속 소녀의 이야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소설 속 '나'가 전하는 이야기는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들이다. 저마다의 사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어느새 따뜻한 감동이 솟아나는 감칠맛 나는 소설이다.

〈문학동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venezia.co.kr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 바베큐 폭립



▶ 바닷가재 안심스테이크



스테이크의 환상 짝궁! 와인

▶ 메로스테이크



▶ 안심스테이크





패밀리레스토랑 (since 1988)

베네치아

대소모임을 위한 단체(40~70석 가능)

베네치아 20%할인 및 포인트·적립·결제카드

SK멤버십카드 | OK Cash Bag신세계카드
광주은행비자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월드컵 경기장 | 월드컵 롯데마트 | 베네치아 월드컵점 | 승마장 | 중앙생활체육공원

월드컵점 : 062-675-6636
모아골프연습장 1층

- 본점 062-227-9363
- 침전점 062-971-7654
- 롯데점 062-232-7370
- 목포점 061-283-2720
- 신세계점 062-360-1981